

전북대 젊은 연구자들 기초과학의 미래 공유

G-LAMP 참여 박사후연구원 세미나 통해 연구 트렌드 공유
분야별 연구성과 · 기술동향 교류, 공동연구 가능성 모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물질·에너지기초과학연구소 소속 포닥 연구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한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연구 최전선을 이끄는 연구자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G-LAMP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전북대 물질에너지기초과학연구소(RIMES) 소속 박사후연구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성과와 기술동향을 공유하며, 미래 공동연구의 가능성까지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강동욱 박사의 '저차원 물질 기반 에너지 변환 물질 및 이중접합 시스템 제어 원리 계산을 시작으로, 강욱중 박사의 '벌티피즈스 물질·에너지 시스템 해석 및 분자동역학 기반 에너지 소재 연구', 아로라 박사의 '밀도범함수론 기반 생화학 반응 기전 연구', 위지은 박사의 '위성영상 기반 태양광 에너지 산출 및 덤핑링 기반 이미지 예측 기술' 등 첨단 융합연구 주제가 발표됐다.



전북대학교가 물질·에너지기초과학연구소 소속 포닥 연구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한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G-LAMP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이기훈 박사는 '통계학 기반 그래프 및 시공간 데이터 분석', 이찬형 박사는 '메타유전체 기반 양자점 생합성 효소 탐색 및 세포 영향성 평가', 정재완 박사는 '3차원 세포배양 및 생식세포 활성화 기전 연구', 조삼연 박사는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저차원 소재의 합성과 광전자 응용' 등을 발표하며 각자의 연구분야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대 G-LAMP 사업단(단장 김희선)과 물질·에너지기초과학연구소(소장 노희석)가 공동 주관했다.

김희선 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G-LAMP 사업을 통해 기초과학의 저변을 넓히고, 젊은 연구자들이 지역 과학기술 생태계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3일 '2025년 교육가족 공모전' 수상작 72편을 선정, 이날 2층 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사진은 수상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5 교육가족 공모전 72편 수상작 선정 · 시상

동시 · 사진 · 솜품영상 · 만화 등 총 402편 전북교육청에 접수돼
전주화정초 이루미 '별처럼 빛나는 우리 이야기' 동시 부문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3일 '2025년 교육가족 공모전' 수상작 72편을 선정, 이날 2층 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 7~19일 '전북교육 2025년 10대 핵심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교육가족 공모전에 총 402편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동시 224편 △사진 86

편 △솜품영상 19편 △만화(웹툰) 71편 등이며, 이 중 심사를 통해 72편을 선정했다.

각 분야 대상은 △동시 '별처럼 빛나는 우리 이야기'(전주화정초 4년 이루미) △사진 '책이 다른 날개로 함께 날다'(반암초등학교 교사 김경수) △솜품영상 '그때 불렀지 선생님'이 그렇게 노력하는 줄'(군산신희초 교사

구서준) △만화(웹툰)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무얼 할까'(영선중 3년 최유빈)가 각각 차지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전북교육청 누리집(www.j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재승 대변인은 "이번 공모전은 교육가족이 직접 참여해 모두가 행복한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담아내는 축제"라며 "앞으로도 교육주체들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안전관리 방안 수립

전북교육청, 안전사고 예방 조치 담야 학교 등에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담은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 각급 학교 및 기관에 안내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학교 내 사고 예방 및 즉각적인 대응,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먼저, 사고 유형별로 주관 부서를 명확히 지정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자연재난·화재·교통 안전·산업재해 등의 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과 △직업계고 실험·실습 사고는 창의인재교육과 △체육 및 음악 활동 관련 사고는 문예체육과가 담당하는 것 등이다.

또한 학생안전이 학교생활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교육청 소속 안전체험관(해양안전체험관, 고창삼인안전체험관, 완주꿈이공안전체험교실, 전주교육문화회관 등) 및 전북119안전체험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실과·미술·체육·음악 실 등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구 및 장비 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 실험실습실에서는 '수업 전 5분 안전교

육', '보호구 착용', '시약의 안전관리', '사고사례 중심 교육'을 필수화한다.

아울러,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수상 안전 교육,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학생보호인력 운영 등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24시간 보고 지원 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고 체계도 정비했다.

이에 학교에서는 사고 발생 시 교육지원청 및 전북교육청(학교안전과, 주관 부서)에 동시 보고하며, 안전신고 전용 이메일(jel119@jne.go.kr)과 긴급전화(063-239-3119)를 통해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보고 이후에는 주관 부서에서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교육, 필요시 시설·제도 개선 요청을 통해 '책임 있는 사후관리체계'도 이어갈 방침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제적 예방, 신속한 초기대응, 철저한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청과 학교,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북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움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에서 전문성 · 소통력 겸비 학부모 강사 양성

전북교육청, 학부모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 학부모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연수원이 학부모교육 강사단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 연수는 학부모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강의 전략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171 연수는 지난 12일 전주비전대에서 진행, 총 32명의 학부모교육 강사단이 참여했다.

학부모교육 강사단이 전북교육정책 방향성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MZ세대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제 적용 가능한 전략 중심의 연수로 운영됐다.

주요 내용은 △전북교육정책 이해(정책기획과 조영재 장학관) △학부모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강사의 자세(서울대학교 김은영 교수) △MZ세대 학부모와의 소통법(사인앤컴퍼니 최유미 대표) 등이다.

민완성 교육연수원장은 "이 연수는 학부모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교육연수원과 교육협력과가 협업으로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2025학년도

RC교육 성과공유회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3일 예술관 JJ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RC(Residential College) 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RC교육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는 박진배 총장, 수퍼스타칼리지 이정희 학장을 비롯한 RC교육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이 1학기 동안 각 역량별 대표 프로그램인 △공동체: 캠퍼스 피크닉, 서바이벌 공동체 훈련 △창의도전: 대기업 탐방, Major Fair △사회기여: 남원춘향제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플로깅 △문화예술: 현대미술 이해하기, 캠퍼스 시네마 등 각 역량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특히, 대학 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제동행 지도교수, RC지원교수, 진로지도사, 선배학습멘토로 구성된 RC공동체가 늘 곁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해왔다.

박진배 총장은 축사를 통해 "RC교육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RC공동체에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수기모집전에서는 자유전공학부 김세연 학생과 컴퓨터공학부 김동혁 멘토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8명의 학생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자유전공학부장 겸 RC센터장 박성희 교수(수학교육과)가 2025학년도 RC교육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수퍼스타칼리지 이정희 학장은 "RC교육은 창의와 협력이라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혁신 교육의 장"이라며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학생, 교수, 멘토가 함께 이룬 교육적 성과와 RC공동체의 단합된 모습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자유전공학부와 RC센터는 오는 2학기 '추수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청년 ON'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발대식을 가졌다.

‘청년의 시각으로 직접 만든 취재 콘텐츠 공식 방송 탄다’

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SK브로드밴드와
‘청년 ON’ 프로그램 운영… Btv 전주방송에 송출키로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취재해 제작한 콘텐츠가 공식 방송에 송출된다.

지난 13일 전북대에 따르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지역사회 이슈를 청년의 시각으로 조명하는 '청년 ON'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발대식을 가졌다.

'청년 ON'은 전북대생들이 지역사회 의 다양한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해 지역 채널인 Btv

전주방송을 통해 송출하는 참여형 지역 발차 프로그램이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Btv 전주방송의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생 기자단의 취재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기자단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보는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제2회 초 · 중 · 고졸 검정고시 담당자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창조내대 회의실에서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진행된 이날 교육은 오는 16~20일까지 이뤄지는 검정고시 원서접수에 대비해 현장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일반 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팹캐스트 콘텐츠를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AI 기반 팹캐스트는 △원서접수 절차 △제출서류 확인 요령 △지주 묻는 민원 응대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담아냈다.

이에 업무 담당자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여유 시간을 활용해 언제든지 오디오 파일을 듣고, 내용을 숙지할 수 있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순창고 2학년 학생

대상 진로 · 진학체험 프로그램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가 13일 순창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진로·진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순창고 2학년 학생 13명이 참여해 전주교대와 임시 관련 공공증을 해결하고, 캠퍼스를 돌아보며 대학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교육대학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직접 학교를 구경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반려동물관리사

자격과정 성료… 20명이 취득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전주시와 협력해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 산업 분야의 취·창업에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반려동물 인식 개선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 사업의 기초 과정인 취·창업자를 위한 반려동물관리사 양성과정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20명의 수강생이 총 8주간 48시간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전문 교수진의 체계적인 이론 강의와 우수한 실습 환경을 바탕으로 운영, 특히 수강생들이 직접 자신의 반려동물을 동반해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강생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